



전 동 용 회장

## 국제 경쟁력

친애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양돈산업 발전과 양돈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일로매진해 오신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 우리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양돈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양돈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대내외에 양돈인의 의지와 저력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또한 우리 양돈업계는 해외로부터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지금까지 거의 중단 상태에 있던 돼지고기 수출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양돈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귀중한 거보를 내디뎠습니다.

이와함께 본회는 검정소 검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일반검정과 농장검정의 확대 시행으로 종돈개량의 발판을 굳게 다졌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돈육소비 홍보사업을 통해 양돈농가의 실질소득을 크게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작년에는 불행히도 국내최초로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우리를 경악케 하였고, 돼지고기 통조림이 일부나마 수입되어 우리의 울분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자율 및 개방의 대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년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부이양과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는 뜻깊은 해인 동시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축산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년은 분명 양돈업계에 있어서 대전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년은 해외로부터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전망으로 있고, 현재

# 강화에 최선을 다하자

양돈업계를 뒤덮고 있는 양돈불황의 어두운 그림자는 하반기에 더욱 그 농도가 짙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암흑의 터널”이라고 일컬어지는 축산물의 유통구조 문제는 개선의 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육가공산업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양돈인의 새로운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지금까지 양돈업계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오신 대의원 여러분에게 본회가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회는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개방 압력에 우왕좌왕만 하고 아우성만 지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를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배양으로 연결시켜, 양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회는 경쟁 상대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축산원자재에 대한 과중한 관세와 부가세의 철폐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도사업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자조금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제적 시장개방과 통합경제가 실현되는 고도의 상업농시대에서 양돈산업의 주인은 생산자인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양돈산업을 정부에 의존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양돈업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생산자인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며,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책무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조금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돈육의 지속적인 수요확대와 산업발전을 주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본회가 명실공히 양돈업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조직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째, 돈육수출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본이라는 좋은 돈육수출시장이 지척에 있으며, 자급하고도 남을 생산기반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수출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규격돈이 없어 수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회는 돈육수출을 통한 생산증대야 말로 양돈농가의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첩경이라 믿고 돈육수출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본회는 양돈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율적인 생산조절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유통구조의 개선과 육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 공영의 도매시장 개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종돈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남부지방에 제2의 김정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돼지고기의 지속적인 소비확대와 수요창조를 위해 돈육요리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와같은 우리 양돈업계의 공통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정치환경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 압력 등 여러가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개 생산자의 힘이 생산자단체인 협회로 결집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양돈농민의 이익은 양돈농민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니듯,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양돈산업의 주체자임을 명심하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양돈산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2천년대의 선진한국양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제2세대에게 발전된 양돈산업을 본업(本業)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 나 하나의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간 양돈산업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썩은 밑알의 역할을 담당하신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며 기념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1987년 2월 24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 동 용